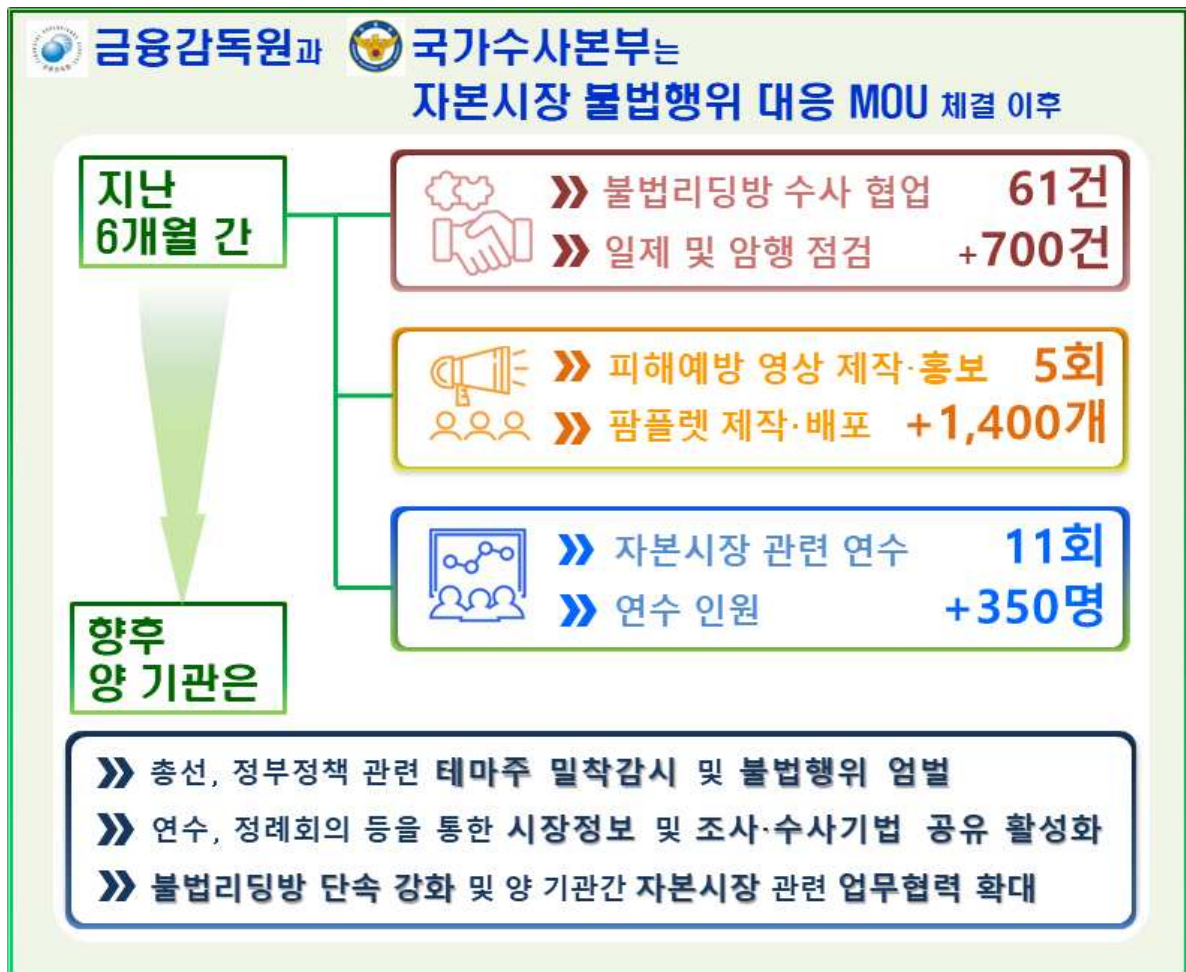


보도	2024.3.4.(월) 조간	배포	2024.2.29.(목)
----	-----------------	----	---------------

담당부서	금융투자검사2국 자산운용기획조정팀 검사1팀	책임자	국 장	김재형	(02-3145-7690)
		담당자	팀 장	유석호	(02-3145-7620)
		담당자	부국장	이장훈	(02-3145-7645)
	공보실 홍보팀	책임자	국 장	이행정	(02-3145-5780)
		담당자	팀 장	류한은	(02-3145-580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강태영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유지훈	(02-3150-2763)

금융감독원 - 국가수사본부 간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23.8월)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I. 개 요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23.8.16.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음
 - 동 MOU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內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 ① 수사·단속 관련 정보공유, ② 피해예방 홍보 활동, ③ 수사·조사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협력하는 내용임

➡ 업무협약 체결 후 반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음

II. 주요 협업실적

1.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 (금감원)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23.6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 (현장검사)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 실시(2회)
 - * (예) 유튜브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불법행위 등
 - (암행점검 등)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테마주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전파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700회 이상)

- (시장감시 및 민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업행위 및 투자사기 단서를 포착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협업

➡ 금융감독원은 상기 업무수행의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MOU체결 이후)을 경찰에 수사의뢰

미등록 투자자문	사 기 ¹⁾	미등록 투자일임	기 타 ²⁾	합 계 ³⁾
48	7	2	4	61

1) 사설 HTS, MTS 등을 통한 투자사기 등,

2) 무인가 투자중개, 유사수신행위 등

3) 대상기간 ('23.8.16. ~ '24.1.31.)

□ (국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9.25.~'24.3.24. 기간중 리딩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61건(MOU체결 이후)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중

< 국가수사본부의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 >

주요 유형	세부 내용
① 허위정보 사기	▸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소 상장 등 호재가 있다고 속여 투자하게 한 후 자금을 편취
② 투자금 횡령	▸ 미인가 투자매매·중개업체를 통해 리딩방에 참여한 고객의 투자금 횡령
③ 불공정 거래	▸ 특정 종목의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대량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리딩방 회원들을 동참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
④ 불법 영업행위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모집,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여 1대1 개별 투자자문을 유도한 후 자문료 편취

참고 1 | 금감원 - 국수본 업무협력 사례로 살펴보는 주요 불법행위 유형

1. 불법리딩방(1:1 자문 등)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1:1 투자자문은 불법입니다.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유사투자자문업체* (주)0000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후 “제가 말하는 주식 종목을 따라만 오면 확실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며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등 1:1 투자자문을 함

*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만 자문 가능(1:1 투자자문 불가)

⇒ 금감원은 암행점검을 통해 투자자문업 미등록 상태에서 1:1 자문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경찰은 수사 후 대표이사 등을 검찰 송치

2. 투자사기



비상장주식 매수, 가상자산 투자,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투자자문사 대표 000는 “비상장주식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년간 회사고객·지인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천 억원 이상의 매수자금을 편취

⇒ 경찰은 유관기관 제공정보를 토대로 수사 착수, 금감원 검사자료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표이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 송치

3. 허위정보 유포




글로벌 금융회사, 유명인 등의 권위에 기대어 투자를 유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투자하십시오.

- '23년중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 글로벌 은행 명의로 0000종목에 대한 허위리포트가 유포되었고, 해당 채널들은 영상 시청자가 문자를 보내면 이들을 회원으로 모집

⇒ 경찰에 관련 내용 통보(미등록 1:1 투자자문 행위도 발견되어 경찰 수사의뢰)

2. 금융감독원 – 국가수사본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다수의 홍보영상,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배포
 - (금감원 유튜브)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직원이 불법 리딩방을 통한 신종사기 수법*, 피해사례 및 구제방법 등을 안내
 - * 유명인 사칭, 투자손실 보상명목으로 위조된 금감원 문서를 제시하며 2차 사기 시도 등
 - (슈카) ‘슈카’가 유튜브(금감원 채널) 방송을 진행하며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
 - (삼프로TV) 불법 리딩방 가입부터 가입비 환불사기까지 신종 사기 수법들을 리얼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하여 피해예방 효과 제고
 - (포스터)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1,400부 이상 제작하고 전국 259개의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부착
 - (라디오 방송) YTN(생생플러스, '23.10.23.), 공익광고(YTN, CBS 등)

홍보 영상 등	유통 채널	동영상 QR
 ① 금감원 유튜브, 「금융속! 브리핑」 (’23.11.1일 ~)	금감원·경찰청 유튜브	
 ② 유튜버 ‘슈카’ 출연 영상 (’23.11.7일 ~)	금감원·경찰청 유튜브	
 ③ 유튜브 「삼프로TV」 공익광고 (’23.11.7일 ~)	「삼프로TV」	
 ④ 포스터 제작 및 배포 (’23.11월 ~)	전국 경찰서 및 금융권 점포 등	-
 ⑤ 라디오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YTN 「생생플러스」(10.23일) ② 공익광고(YTN·CBS) 	YTN 라디오 등	-

참고 2 | 불법리딩방,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6계명]

① 정보 제공자와 정보내용을 확인하세요!

-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를 확인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krx.co.kr)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은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②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하세요!

- ❑ 리딩방 관련 분쟁해결, 손실복구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

③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세요!

- ❑ 방송 플랫폼, 공개 채팅방 및 주식 종목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유의(업자간 DB거래로 2차·3차 피해 우려)

④ 리딩방 이용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 ❑ 리딩방에서 1:1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
- ❑ 사설 HTS, 선물거래계좌 대여 명목의 입금 및 송금 요청에 주의

⑤ 리딩방 이용시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될 수 있어요!

- ❑ (선행매매에 노출) 리딩방 운영자 등이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하여 주가상승 유도 후 매도
- ❑ (시세조종에 연루)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대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회원들에게 동참을 요구

⑥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방법을 기억하세요!

- ❑ (불법영업·투자사기)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사기 피해 신고 ☞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금융감독원
- ❑ (불공정거래 행위)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및 선행매매 의심 신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 (피해구제) 리딩방 관련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3. 금융감독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경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및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주식시장 부정거래, 회계범죄 등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 (집합연수) '23.11월 양 기관 간 최초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불공정 거래, 회계부정 관련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 실시(1회)
 - (방문연수) '23년중 상시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하여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10회)

< 금융감독원의 경찰 수사관 대상 연수 프로그램 >

구 분		주요 내용
연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국사수사본부) 수사관 약 350명 내외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 등
연수 내용	불공정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 •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관련 조사사례 및 조사기법 • 매매분석의 이해 및 실습 • 거래소 매매심리 업무 이해
	회계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독 관련 법규 • 회계심사 및 감리 절차 •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감리기법
연수 시기 및 연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 집합연수, 1회) 금융감독원 연수원, '23.11월 • (방문연수, 10회) 전국 시·도 경찰청, '23년중

Ⅲ. 향후 계획

1.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행점검 등을 통해 밀착감시하고,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및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
- 低 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총선 관련 테마주·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조치 하겠음

□ 불법 리딩방 관련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전 화 : 국번없이 1332

□ 증권불공정 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제보 방법

· 인터넷 :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② 민원·신고 →
③ 불법금융 신고센터 → ④ 증권불공정 거래 신고

· 우 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우편번호 07321)

2.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연수, 정례회의 등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예: 책자)를 함께 발간하고,
- 금감원 - 국수본 간 수사협력 이외에 정례회의(예: 분기별)도 개최하여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

3.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합성 등), 허위 HTS·MTS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등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와
 - 2차 피해발생 우려가 큰 개인정보 DB거래 등에 대해서도 암행 점검을 포함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
- 또한, 현재 리딩방 중심으로 이뤄지는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의 협력체계를 자본시장의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